

공동체 도시재생
urban regeneration of community

WINWIN

Magazine



contents

공동체 도시재생

도시재생이 뭐야? | 1ST

우리나라 도시재생 사례 | 2ND

01 수원시, 마을 르네상스 사업

02 민, 관, 기업간 상생협력 "언더스탠드 예비뉴"

대덕구 오정동 도시재생 탐방 | 3RD

01 청년의 마음을 사로잡는 정책

02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도시재생

03 자연과 함께하는 도시재생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항하다! | 4TH

01 젠트리피케이션이 뭐야?

02 붉은 벽돌 마을의 과거와 현재

- 십자말 풀이
- 탐방 일지 영상
- 소감

도시재생이 뭐야?

도시재생이란 도시개발의

하나의 방법으로 산업구조의 변화 및 신도시 위주의 도시 확장으로 상대적으로 낙후된, 낙후되고 있는 기존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 창출함으로써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으로 부흥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전면 철거와 재개발을 중심으로 도시 개발을 진행해 왔던 시대를 지나 이제는 그 정책의 한계를 인정하고 도시재생이라는 새로운 정책을 가지고 더욱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힘쓰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바로 **'공동체'**다. 공동체는 우리를 만들고 소속감을 형성하며 무엇보다 더불어 사는 것의 중심에 있다. 하지만 현대사회를 살고 있는 당신에게는 경쟁과 개인, 홀로서기, 1인 가구, 빈부 격차 등의 수식어가 더 익숙하고 당연할 것이다. 그러나 이 부분을 재고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 공동체가 붕괴되고 과열된 격차를 낳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도시재생 중에서도 **공동체 도시재생**을 주목해

야 할 필요가 있다. 지속가능한 성장에 발맞춰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공동체 도시재생은 급성장 사회에서 점진적 사회로 변화되면서 생겼다. 정부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다른 도시 재생들과 다르게 마을 공동체를 형성하여 주민자치적으로 참여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이때 도시 개발에 대한 생각과 정책들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공동체 도시재생의 중요성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는 지역마다 문화와 매력을 이해하고 살고 있는 이들에게 집중한 변화를 추구했다..



다시 사람들을 모아야 한다. **지속 가능한 삶**

은 천천히, 점진적으로 성장하고 지금 시대에 알맞는 목표이다. 더 나은 삶,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서는 공동체 형성해야 한다. 그리고 나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 나 하나쯤은 이라는 생각은 멈추고 내가 사는 도시, 내가 살고 싶은 도시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의 매력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도시재생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정책들이 필요한지 고민하고 참여할 수 있는 부분에 충분히 참여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도시재생 사례

이 수원시, 마을 르네상스 사업

수원 마을 르네상스는 '마을이 다시 태어나다'라는 의미, 주민들이 스스로 문화와 예술 건축, 환경이 어우러지는 삶의 공간을 만든다는 취지의 수원시 자체 도시재생 프로젝트!



마을 르네상스 공모 사업은...

마을의 조사 및 체험 등의 공동체프로그램, 소공간 중심의 하드웨어 사업과 공공시설을 포함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추진하는 시범사업으로 참여주민의 역량개발, 마을르네상스 확산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수원시 마을 르네상스센터에서는 연 2회 사업계획서를 공모하고 있으며, 주민 15명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공동체 사업에 도움이 된다면 어떤 아이디어도 가능하며, 채택이 되면 1년에 5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추가로 공동체 추진 사업이나 교육을 받으면 다른 공모전에도 참여할 수 있으며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수원 화성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후, 도시개발 제한이나 행궁 복원 등으로 인해 사는 사람들이 줄어들게 되었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 그곳에 남아있던 주민들과 수원시가 합해 **행궁동의 골목마다 벽화마을, 공방 거리 등 특색을 지닌 문화거리로 재탄생 되었다.**



02 민, 관, 기업간 상생협력 "언더스탠드에비뉴"

언더스탠드에비뉴는 민, 관, 기업간 상생협력하는 사회공헌 프로젝트로 탄생한 창조적 공익문화공간.



01) 일자리 창출 플랫폼

청년 창업가와 어르신 일자리 마련 및 지속적인 취약계층 고용의 역할을 하고 있다.

* POWER STAND : 성동구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어르신 복지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성동구청과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되었다.

02) 원스톱 통합솔루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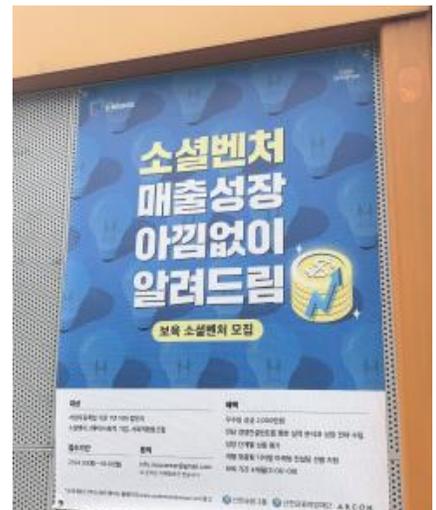
사회에 기여하는 미래 인재를 키우기 위해 창업·창직 교육부터 시장 테스트, 금융 및 투자 지원, 판매 유통지원까지 원스톱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03) 시민들이 즐기는 문화공간

공연, 강연, 체험, 마켓 등의 문화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다.

* ART STAND : 누구나 예술을 쉽게 즐길 수 있는 문턱 낮은 문화공간, 국내외 크리에이터들의 신작 무대 소개 공간 등으로 사용된다.

신한은행은 언더스탠드에비뉴에서 '스퀘어 브릿지'라는 사회공헌사업으로 K-스타트업의 성장과 글로벌진출을 지원하는 대한민국 대표 스타트업 육성 플랫폼을 하고 있다. 창업 지원, 창업 협력, 페스티벌 3가지의 일을 하고 있다.



와글와글 북적북적 청년, 상인, 주민이 함께하는

대전 대덕구 오정동 도시재생



단순히 도시재생 지역을 방문한다고 해서 그 내부의 이야기를 전부 알 수는 없었다. 우리에게 좀 더 전문적인 해설이 필요했다. “민, 관은 어떻게 서로 협력할까?”, “주민자치는 어디서 이루어질까?”, “지역의 특색에 맞춘 도시재생은 무엇일까?” 우리 팀은 공감 만세의 <e로운 대덕구 혁신 로드>를 신청하여 체계적인 도시재생 정책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다.

1. 청년의 마음을 사로잡는 정책

청년 커뮤니티 공유공간, 청년벙커

청년벙커는 기존 민방위 훈련소로 쓰이던 벙커를 재활용한 청년 공유공간이다. 대덕구 청년들의 의견을 토대로 조성된 청년벙커는 오정동과 같이 청년 거점 공간이 부족한 지역에 청년들의 편안한 휴식처 역할뿐만 아니라 자유롭게 생각을 나누는 소통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 청년벙커 공간도

<p>비밀의 정원 다목적공간, 공연장, 북카페</p> <p>청년들의 휴게 겸 상담 공간입니다.</p>	<p>연금술사의 집 공유주방</p> <p>청년들이 자유로이 음식을 해먹을 수 있는 공유공간입니다. 다양한 레시피와 재료가 마련되어 있어 요리에 대한 숙련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p>
<p>트레이닝 필드 안무실, GX룸</p> <p>댄스, 요가, 연기 등을 하는 트레이닝 공간입니다. 다양한 트레이닝을 함으로써 신체능력과 스킬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p>	
<p>벙커 의사당 회의실, 강연장</p> <p>청년들의 회의 및 소규모 강연 등 삶을 디자인하는 공간입니다. 퀘스트를 공유하고 디자인함으로써 시뮬레이션을 하고 이를 통해 퀘스트의 성공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p>	<p>와글와글 광장 다목적공간, 공연장, 북카페</p> <p>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지식을 쌓을 수 있는 벙커에서 가장 큰 공간이며 와글와글광장에서 파티플레이어(커뮤니티)결성, 튜토리얼(벙커가이드)제공, NPC를 통한 퀘스트 안내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메인 공간입니다.</p>

☆ 기존 공간을 재활용!

부족한 청년 거점 공간 마련!

청년들이 직접 꾸민 공간!

2.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도시 재생

오정 창의공작소

오정 창의공작소는 사용하지 않는 교회건물부지를 매입하여 예비창업자와 기존 재창업자들에게 필요한 공간과 설비를 갖추어 계획, 오정동의 공구 소상공인과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거점장소!



..... 88번 길 가로경관 개선 사업

현재 대덕구에서는 불법주차, 보도 차도의 쓰레기로 인해 보행환경에 불편을 느껴 이에 대한 가로경관 개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주민과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가로환경을 주민 스스로 유지하는 거리재생 사업을 계획 중이다.

상생하우스

새롭게 신설될 예정인 복합문화공간 in 상생하우스는 비어있는 주택 4채를 매입하여 철거하고 이 부지를 이용해 창업 레지던스, 오정동 지역공헌센터, 커뮤니티 키친, 드림플레이스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도서관, 국민체육센터, 커뮤니티공간, 어른이휴게쉼터로써 사용될 예정이다.



3. 자연과 함께하는 도시재생

도시는 사람들과 같이 살아 숨 쉬는 공간! 자연을 생각하는 도시재생이 필요하다.

넷제로 카페 (2호점 달그락)

넷제로란?

온실가스 배출량을 0에 맞추고, 화석연료를 전혀 쓰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

넷제로 카페는 지구의 평균온도 상승을 낮추고 지구와 지역을 살리는 에너지 커뮤니티 공간. 마을에너지 활동가 교육을 통해 에너지 전문 인력을 발굴하고 양성한다.

넷제로 카페 2호점 달그락에서는 “대덕 e 나눔 운동”을 실행 중이다. 대덕 e 나눔은 지정점포에서 미리 상품과 서비스를 결제하면 다른 사람이 무료로 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나눔운동이다.



넷제로 카페 달그락에서는 자전거를 돌려 오렌지 주스를 만들 수 있다.



Q&A

도시재생 지역공헌센터 이성일 사무국장

2021년 5월 13일, 대전 대덕구 오정동
청년병커에서 대덕구 도시재생 정책
설명을 듣고 있다.



Q. 도시개발과 도시재생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기존의 도시 개발은 도시를 사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도시는 사람들과 같이 살아 숨 쉬는 공간이라고 생각해야 해요.”

Q. 코로나로 인해 대면 활동이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활동들이 많지만,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오프라인으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Q. 민관 협약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더 바라시는 사항이 있을까요?

“현재 민,관 협업의 도시 재생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민, 관, 기업까지 협력하는 사례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Gentrification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항하다



낙후

유입

외부자본

외부인

예술가

젠트리피케이션?

등지내몰림

임대료 상승

거주민

활성화

젠트리피케이션이 뭐야?

낙후된 구도심 지역이 활성화되어 중산층 이상의 계층이 유입됨으로써 기존의 저소득층 원주민을 대체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의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싼 곳에 작은 문화 시설, 카페, 식당, 술집, 옷가게 등이 하나둘씩 들어와서 장사를 한다.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이곳이 소위 '핫 플레이스'가 된다. 그 후 입소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의 영향으로 사람들이 더욱 더 몰려든다. 그 결과, 보증금과 월세가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처음 들어와서 문화적, 상업적 분위기를 만들어 냈던 임차인들은 다른 곳으로 쫓겨나게 된다



붉은벽돌마을의 과거...



@사진출처 성수동걷다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1가에 위치한 붉은벽돌 마을은 한국의 브루클린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 성수동만의 감성과 느낌을 살려 마을이 조성되어 있다.

성수동은 1970~1980년대 붉은 벽돌로 지은 공장과 창고, 소규모 주택이 많았는데 이를 폐기하기보다는 성수동만의 독특한 매력으로 승화시키기 위한 취지였다. 이를 통해 한옥 하면 북촌이 떠오르듯 붉은 벽돌 하면 성수동을 떠올릴 수 있도록 고안됐다고 한다.

성수동은 1960년에 공업단지로 조성되어 공장지가 주를 이루게 되었고 이후 70년대부터는 수제화 거리를 대표로 인쇄소, 자동차 공업사 등이 즐비했던 제조업 심의 지역이었다.

그러나 1980년 이후 산업공동화가 진행됨에 따라 버려진 창고와 작동을 멈춘 낡은 공장이 늘어났다.

이로 인해 한동안 낙후된 공간으로 유지되어 오다가 2010년대에 들어서서 성수동에 젊은 예술가들이 모여 들게 되면서 복합문화공간으로 변해 카페, 전시장, 공방 등이 들어서면서 성수동을 방문하는 유동인구가 늘어났다.

붉은벽돌마을의 현재



유동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외부에서 상인, 자본 등이 유입되어 상가들의 임대료가 상승했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인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했고 성동구청은 2015년 9월에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 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라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를 발표했다.

조례를 간단하게 요약해보자면 성수동에 지속가능발전구역을 지정한 뒤 도시재생사업을 시작해 성수동의 상권 발전을 유도하며, 대형 프랜차이즈 등이 입점해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외부에서 들어오는 입점업체를 선별할 수 있게 해 도시경쟁력과 문화다양성을 보호한다는 조례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성동구의 노력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및 시행령이 개정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의한 임대료 인상을 상한선인 5% 이하로 임대료를 안정화해서 더불어 살아가기를 도왔다.

그리고 젠트리피케이션으로 피해를 입어 내몰린 상인 또는 내몰릴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상인들을 위해 안심상가도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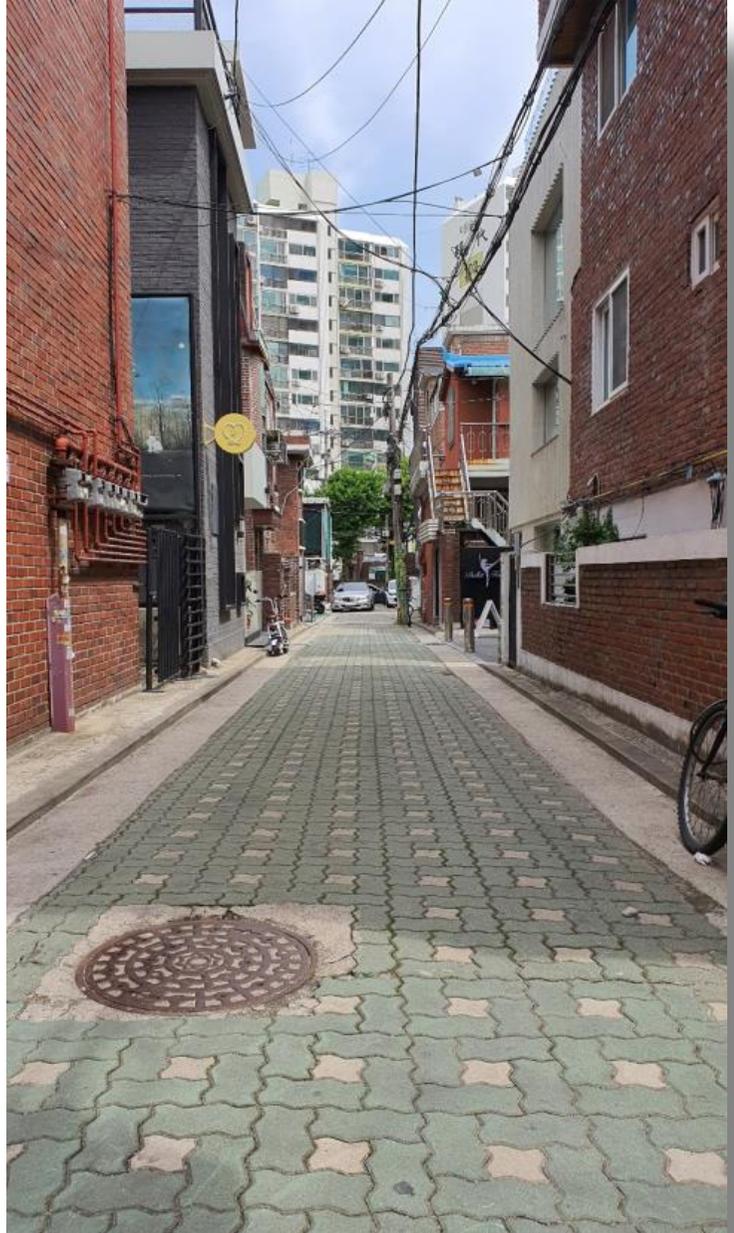
안심상가는 주변 시세의 70~90% 수준의 임대료로 장사할 수 있는 상가이다. 그리고 10년간 머무를 수 있다는 점이 최대 장점이다. 5년 단위로 계약하고 계약 기간 중 월 60만원대의 임대료를 올리지 않는다.

안심상가 운영은 전문가와 시민들이 적극 참여하는 구조다. 시민단체와 임차인 대표, 법률, 금융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된 공공안심상가 운영위원회가 임대료 상승과 입주자 선정 등 중요한 결정을 맡고 있다.

이런 갖은 노력 끝에 서울 성동구는 지난 2020년 10월부터 12월까지 약 10주간에 걸쳐 지속가능발전구역 내 상가업체 662개소의 상가임대차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8년 대비 상가임대료 인상률이 평균 0.16%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성동구에서는 지역내 상가 임대료가 실시간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성동구 구청장 정원오는 지역 내 '상가 임대료 빅데이터' 구축에 나서 공공데이터로 구민들에게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성동구가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시도하는 것으로 빅데이터가 구축되면 갑작스런 임대료 상승에 대해 선제적인 대비가 가능하고 소상공인 및 예비 창업자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북은벽돌마을의 골목길

성공적인 해외 도시재생 사례



@ 하이라인 파크 공식홈페이지 사진



@ 하이라인 파크 공식홈페이지 사진, 하이라인 파크 시공 전

시민의 적극적 참여가 도시재생의 키!

서울로 7017의 벤치마킹 사례로 잘 알려진 미국 뉴욕의 하이라인 파크 도시재생사업은 기존 하이라인의 열차 운행이 다른 교통수단의 발달로 인해 중단되면서 방치되어 있던 철로를 철거하지 않고 시민들이 쉬고 운동할 수 있는 공원으로 탈바꿈한 사례이다.

이 사업이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폐철도가 공원이 되어서가 아니다. 바로, **시민단체의 움직임과 뉴욕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도시재생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시민단체 ‘Friend of Highline’의 창립자 조슈아 데이비드와 로버트 해먼드는 ‘우리와 다른 시대의 산업 유산 위에 올라서서 거닐어보는 것은 근사한 일’이라며 고가 철도를 철거하지 않고 보존하는 방법을 생각해냈다. 이에 **철거를 고민했던 정부는 재활용 방안을 수립하였고, 이들의 열정은 뉴욕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하이라인 공사비의 약 1/3을 모금으로 충당할 수 있었다.**

우리는 과거의 일방적인 Top-down의 관 주도가 아니라 정부, 기업, 비정부기구, 지역주민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거버넌스의 구조를 일궈내야 한다.** 철거를 고민했던 정부가 시민단체의 의견을 받아들여 하이라인 파크 도시재생사업을 실천한 것처럼 도시의 주체가 되는 주민들이 직접 의견을 내고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도움으로써 거버넌스 시스템을 형성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이 주도할 수 있는 도시재생 정책을 추진해나가야 한다.

체계적인 전략은 지속 가능하게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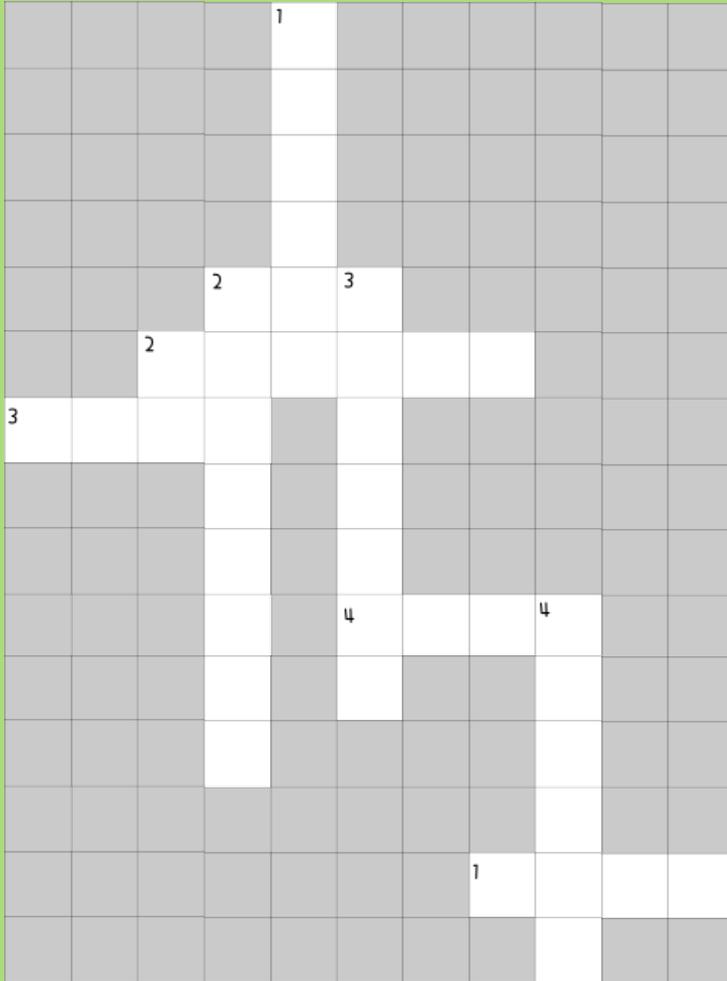
도시재생은 장기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국가의 지원만으로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힘들고 쉽게 지쳐버릴 수 있는 사업이다. 우리나라에서 진행되는 도시재생 뉴딜정책이 국정과제로 선정이 되어 빠르게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시민들의 참여와 이해 관계자들의 꾸준한 노력이 없으면 지속 불가능하다.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재생사업 추진과 설계, 진행, 그리고 이후에 재생사업 내용의 변화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안을 마련해야 한다.



@ 하펜시티 ©로버트 파우저

독일 함부르크에 위치한 하펜시티 도시재생 프로젝트는 사업 초반 단계부터 장기적이고 전략적으로 계획을 세운 성공적인 사례이다. 독일의 함부르크는 상업과 무역이 위주였던 항만 도시였지만 산업구조의 변화와 새로운 교통의 발전으로 그 기능이 쇠퇴하기 시작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하펜시티는 도시 계획, 설계 단계에서 개발지역을 10개 구역으로 나누었고, 각 구역별로 지역 정체성을 확립시킬 수 있었다. 하펜시티 도시재생사업은 사업을 추진하는 초기에 목표부터 전략 그리고 실행 단계까지 모두 연계성, 연관성을 가지고 진행되었다. 우리는 이 사례를 통해 단기적인 목표만을 바라보고 도시재생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십자말풀이



가로 낱말

1. 언더스탠드 에비뉴는 민, 관 기업과 어떤 협력을 하고 있을까?
2. 성수동은 창고를 개조시켜 어떤 카페를 만들었을까?
3.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투명하게 의사 결정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제반 장치는 뭐라고 부를까?
4. 농촌을 떠나 도시로 이동하는 현상은 뭐라고 부를까?

세로 낱말

1. 수원시의 도시재생 프로젝트 이름은 뭘까?
2.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복합문화시설을 갖춘 곳은 어디일까?
3. 낙후된 구도심 지역이 활성화되어 중산층 이상의 계층이 유입되어 기존의 원주민을 대체하는 현상은 뭐라고 부를까?
4. 산업구조의 변화 및 신도시 위주의 도시 확장으로 상대적으로 낙후된 기존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 창출함으로써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으로 부흥시키는 사업은 뭐라고 할까?

정답 공개!



				¹ 마								
				을								
				르								
				네								
				² 언	³ 상	젠						
			² 인	더	스	트	리	얼				
	³ 거	버	년	스		리						
				탠		피						
				드		케						
				에		⁴ 이	촌	향	⁴ 도			
				비		션			시			
				뉴					재			
									¹ 상	생	협	력
									사			
									업			



가로 낱말

1. 언더스탠드 에비뉴는 민, 관 기업과 어떤 협력을 하고 있을까?
2. 성수동은 창고를 개조시켜 어떤 카페를 만들었을까?
3.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투명하게 의사 결정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제반 장치는 뭐라고 부를까?
4. 농촌을 떠나 도시로 이동하는 현상은 뭐라고 부를까?

세로 낱말

1. 수원시의 도시재생 프로젝트 이름은 뭘까?
2.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복합문화시설을 갖춘 곳은 어디일까?
3. 낙후된 구도심 지역이 활성화되어 중산층 이상의 계층이 유입되어 기존의 원주민을 대체하는 현상은 뭐라고 부를까?
4. 산업구조의 변화 및 신도시 위주의 도시 확장으로 상대적으로 낙후된 기존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 창출함으로써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으로 부흥시키는 사업은 뭐라고 할까?

3분 요약! 탐방 동영상



<https://youtu.be/-1jt980tiWo>

Editor's Review

이세윤 _ 잡지를 제작하는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았다. 회의는 고단하고 머리를 계속 굴려야 하는 과정이 계속 되었다. 또 이미 결정된 부분을 계속해서 수정해 나가면서 더 나은 방안을 구성하였다. 힘들었지만 모든 과정이 즐거웠고 배울 수 있는 것이 많았다. 그리고 내가 아는 지식, 내 것이 늘어난 기분이라 매우 뿌듯하다. 이로써 우리의 잡지가 완성되었다.

김민형 _ 잡지를 만들기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다. 맨 처음에는 도시재생에 관해 무지한 상태였고 어떻게 해야 할까 막막했지만, 강의를 들으면서 도시재생에 대해 알게 되고 잡지에 들어갈 내용을 위해 서울이랑 대전도 탐방하면서 여러 알찬 경험을 해본 것 같다.

박규원 _ 공동체 도시재생에 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매주 회의를 진행하고 의견을 모으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다. 하지만, 직접 걸어 다니면서 우리나라 도시재생 정책에 대해 잘 알 수 있었고, 도시재생에 대한 인식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무엇보다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기까지 고생 많았던 조원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이정수 _ 잡지랑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새로운 분야를 접해보는 것이라 어려움도 많았고 부족함도 많았다고 느껴졌다. 이론으로 배우고 탐방을 나가서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끼는 것은 흥미롭게 느껴졌지만, 탐방 다녀온 것을 기사로 만들어내는 부분이 생각처럼 쉽지 않았다. 도시재생을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환경이 더 좋게 발전하는 데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나부터 관심을 가지는 것을 시작해야 겠다고 생각했다.

winwin 공동체 도시재생

2021년 6월 3일 발행

발행처 | 백석대학교

소셜비즈니스 융합학부

발행인 | 김혜경

지은이 | 김민형

박규원

이세윤

이정수

